

2024년 제1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 안건

진정 개요 및 진행 경과

2024. 1. 8.(월) 기준

1. (의결 23-20) 장애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의한 차별(21진정0687300)(재상정) [비공개]

○ 진정 개요

- 진정인: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프리웰지원주택센터

- 피진정인:

① 유경춘 :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신부

② 이병훈 : 민들레공동체 원장/신부

③ 이기수 : 둘다섯해누리 원장/신부

○ 진정 배경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유경춘 주교, 이하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라 함.)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대한 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고 함.)를 2021년 8월 24일(화) 오후 3시에 페이스북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함.

○ 문제 사항

문제1.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사진을 본인들의 동의 없이 불법 사용

- 본 사건 피진정인 이기수 신부가 발제하면서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함. 심지어 본 영상은 유튜브에 2024.1.8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으며, 피진정인 이기수 신부는 그후에도 같은 사진을 여러 회 사용.

“이 안의 도면 안에 보시다시피 컷줄을 끼고 누워있는 이 장애인이 최근에 모 시설에서 강제 퇴소하면서 자립한다고 내보낸 장애인입니다. 과연 자기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그 장애인이 나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밖에 있는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시설 안에 있는 10%를 굳이 깨서 밖으로 내보낼려고 그런다?”

문제2.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차별

“탈시설 된 사람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들이 각각 방에서 서비스를 누리고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서고 또 벽으로 막힌 곳에 혼자 각 방에 있는 것이 마음껏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조금 불편하게 있는 거 하고 어느 것이 자유로울 것이고 그들은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요. 그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대신 골라 줄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문제3. 인권위의 무책임한 진정 사건 처리

- 본 사건은 **2021.9.13**에 진정된 사건으로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8일** 현재야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

- 인권위가 본 사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진정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동안 현재에도 유튜브에 당사자의 사진이 불법 게재되어있으며, 언론에서도 인용하며 피해 확대

○ 진정 당시 시정권고 요청 사항

- 허락받지 않고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진이 수록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일체의 관련자료 게시 및 공개를 중단할 것

- 장애인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를 사과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

2. (의결 23-21) 장애인단체 대표자의 장애 비하 발언(22진정0340000)(재상정) [비공개]

○ 진정 개요

- 진정 일시 : **2022년 5월 9일(월)**

- 진정인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원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피진정인 :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 진정 사실 관계 : **2022년 4월 1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관련 시위의 부적절함을 표현하면서)그런 단체가 탄생된 것은 저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도 굉장히 어떤 기형아와 괴물을 키웠다.” 발언.

○ 진정 진행 경과

- 2022년 11월 경,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 회의(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에 안건 상정되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 회의에 안건 계류
- 2023년 5월 25일, 1년 넘게 사건을 계류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인권위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 ‘기형아’ 발언 인권위 차별인용 촉구 기자회견)
- 2024년 1월 8일,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문제 사항

- ‘기형아’는 태아상태나 출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장애를 갖게되는 선천성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단어자체가 ‘병신’ 등의 표현처럼 비하를 담고있는 표현은 아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을 빗대어 사용하는 과정에 ‘기형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해당 장애유형을 모욕 비하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장애유형에 대한 표현을 부적절하고 모욕.비하적인 상황에 빗대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인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부적절한 표현들에 대하여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여러차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 더욱이 피진정인은 다수의 지체장애인당사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대표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모욕 비하 발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 하지만, 이러한 본인의 대표자로서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행사에서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기형아’라는 단어를 빗대어 사용하였음.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을 무엇인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모욕 비하하여 토론회를 지켜보던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였음.

※ 차별 인용 반대하는 위원의 논리 :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리상 장애인 당사자 대해서 ‘기형아’라고 하면 ‘장애인차별행위’가 성립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장애비하적 표현을 하는 것 자체로 ‘장애인차별행위’가 성립하진 않는다는 것이 이유임.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문대로 해석하면 차별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음.